

살아있는 혼

말씀: 창2:7

요절: 창2:7

오늘 말씀은 “**사람의 정체성, 실존, 자아,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알고자 사색하고 탐구합니다. 철학의 핵심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확히,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프로타고라스
- 사람은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이다. -괴테
-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파스칼. 이성주의.
- 사람은 단지 material(물질)일 뿐이다. 생각은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유물론
- 사람은 작은 우주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동양 사상
- 사람은 고등 동물(생물)이다.- 진화론자, 생물학자

그럼,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살아 있는 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神)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랍도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요4:24). 그러나 사람은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레17:11,14), 사람의 생명은 ‘**혼**’입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육) 이렇게 셋이 하나로 된 존재이며 그 정체성은 ‘**혼**’입니다. 몸은 혼의 옷이요, 집이요, 그릇입니다. 영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혼은 ‘나’란 자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혼입니다. 나(자아)라고 말할 때 ‘나’는 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에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살아 있는 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의 중요성은 주님의 이 한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막8:36-37). 사람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혼입니다. 여기서 ‘자기 혼’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실체는 혼입니다. 사람을 셀 때 주님은 ‘혼’으로 세십니다. 우리말로

는 사람을 몇 ‘명’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몇 ‘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혼**이셨습니다. 몸은 죽어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이지만 ‘혼’은 지옥에 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Breath of life)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창2:7). 사람의 삼위일체입니다. 흠(몸), 숨(영), 혼(자아) 이렇게 셋이 한 사람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 받은 사람 역시 한 사람이 셋으로 되어 있고 셋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trinity)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람의 삼위일체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영과 혼과 몸’... 셋입니다.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 없는 몸, 혼이 없는 몸, 몸이 없는 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셋이 모두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몸이 죽었다고 해서 혼이 없어지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혼의 수면이나 멸절을 가르치는 이단 종교들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몸과 혼은 다릅니다. 몸과 영은 다릅니다. 혼과 영은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란 것은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흠을 사용하여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진토, 먼지, 티끌, 흠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는데 이는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흠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흠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욥10:9)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리라.”**(욥34:15). 전도서에도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흠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흠으로 돌아가거니와”**(전3:20)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의 재료는 흠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라 불립니다(고후4:7).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 쇠나 구리 등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물론이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고전 15:47). 아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탐하거나 정복하고 거기서 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며,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땅을 지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 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크리스천은 땅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흠에서 취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모두

남겨 두고 저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런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모습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상급, 유업, 본향, 거처는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장차 하늘에서 나신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란 말씀은 영을 불어 넣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코는 숨을 쉬는 지체입니다. 입으로도 숨을 쉬지만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기타 코로 호흡하기 곤란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사2:22). 생명의 숨=영. 숨, 바람, 영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친히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슥12:1). 이로써 사람은 몸과 더불어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사42:5).

-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잠20:27).
-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 하리요?”(잠18:14). 영과 몸의 관계.
-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전3:21).
-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흠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전12:7).
-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고전2:11a).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지정의’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영은 거듭난 영, 새로운 영, 새롭게 창조된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고후5:17).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고전2:15).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말2:15,16). 사람의 영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과 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지으신 영은 주님과 결합하고,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고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사실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단지 과거의 창조의 역사,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섭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정확히 overlap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듯이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4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골1:15).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 아들께서는...**”(히1:3).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골2:9).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옷이 몸의 형상이듯, 몸은 혼의 형상입니다. 몸은 혼을 덮고 있는 옷이며, 집입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혼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혼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고전11:7)란 말씀을 통해 아담이 누구의 모습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고전15:49).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롬8:29a). 우리의 몸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3:10).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창2:7). 이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본들에서는 거짓되어 왜곡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령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천사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생명체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동식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being. 현대 역본들은 주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써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완전히 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몸)을 지으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은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45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합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5:45). ‘기록된 바...’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의 본문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 자체가 말해 줍니다.

“**살아있는 혼**”이란 무엇입니까? 혼은 자아, 자신입니다. 혼은 “자아를 인식”(self-conscious)하며, 감정, 애정, 기억 등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렘38:16).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 줍니다. 혼을 통해 영과 육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본래 몸의 욕구(육신의 정욕)와 영적 욕망은 전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혼은 몸과 영의 전투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것이 서로 대적하고 다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혼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혼은 약해지고 낙담합니다. 사람마다 육신이 원하는 것과 속사람(영)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 혼, 육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 분열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 진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약4:1)고 합니다. 전쟁과 싸움은 모두 육체의 정욕들로부터 납니다. 마음은 영과 육의 전쟁터입니다. 영은 양심과 직관, 본성에 기록된 법을 보여 주지만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육신은 혼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벧전2:11).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누구나 공감하고 일상에서 늘 체험하는 진리입니다. 육체의 정욕들은 혼을 대적할 뿐 아니라 괴롭게 합니다(벧후2:8).

육신은 혼을 대적할 뿐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고 거슬러 싸웁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5:17). 육신은 죽기 전까지 죄의 활동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혼의 몫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으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롬8:13). 육신이나? 성령이나? 혼은 판단과 선택, 결정을 내립니다. 크리스천이 성령을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모든 죄인들의 혼은 육신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시119:25). 그래서 혼은 육신에 굴복합니다(시44:25).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데도다.”(롬7:23). 이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혼은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의 몸을 혼으로부터 분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야만 합니다. 살아 있는 혼이 된 사람은 옛 사람과 분리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혼이 죄의 속박, 사망의 권능에 매여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은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육신의 지체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대로 ‘살아 있는 혼’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